

분단 독일과 통일 독일 :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한 변증법

정주신 한밭대학교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승4국에 의해 각각 4분할된 전범국 독일의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 분할, 소련과 동독 당국에 의한 베를린 장벽의 구축, 그리고 동독 주민들의 여행 자유 개방에 따른 베를린 장벽 해체 등을 통해 동서독의 통일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전승4국과 양독2국 간 쟁점이 되어 온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하여 헤겔의 정(正, These)→반(反, Antithese)→합(合, Synthese) 변증법을 적용하였다. ① 전승4국이 전전(戰前) 회담의 산물인 전범국 독일을 동서독 분단과 동서 베를린 분할을 해 놓은 국제질서하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미에서의 정(正), ② 그중에서 소련과 동독 당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깨고 공산주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의미에서의 반(反), 그리고 ③ 베를린 장벽 해체가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동독 주민들의 이주와 이탈을 넘어서 동유럽의 민주화 일환으로 나타난 촛불시위, 동독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G. Schabowski)의 기자회견에서의 ‘즉시, 지체 없이’ 국경개방 허용 발언의 말실수 등이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止揚, Aufheben)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의미에서의 합(合)인 것이다. 요컨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전승4국은 전범국 독일을 분할하여 패권이란 국제질서를 지속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소련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 구축에 나서면서 그들만의 공산권 체제유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서독 여행 자유와 국경개방 시위에 나선 동독 주민들의 자유화와 동독 당국의 개방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이 중첩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단초가 되었고, 정상적인 통일 독일로 자리매김한 것은 더이상 분단 독일이 지속될 수 없다는 변증법적 논리를 깨우쳐준 사실이 아닌가 한다.

주제어 : 전승4국, 베를린 장벽, 변증법, 동서독 분단, 동서 베를린 분단

I.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전승4국이 전범국인 독일을 각각 4분할하여 동서독(東西獨) 분단과 동서(東西) 베를린 분할이란 이중분할(二重分割)로 고착화한 후, 분단 독일이 통일 독일로 반전되기까지의 과정을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라는 변증법(辨證法) 논거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승4국에 의한 동서독 및 베를린 분단체제가 공고화되리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소련의 전승4국 이탈과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이주 현상 등이 교차되면서 분단체제는 전승4국의 역할보다는 소련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베를린 분할과정과 그 일환으로 진행된 ‘베를린 장벽’(Berlin Wall)의 구축 및 동독 주민들의 베를린 장벽 해체과정을 통해 동서독의 통일을 변증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전승3국(미국·영국·프랑스)이 점령한 서베를린과 전승1국(소련)이 점령한 동베를린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소련과 동독에 의한 베를린 장벽 구축은 기존 전승4국 질서를 부정하고 공산체제 강화를 꾀하는 것이었으나 동독 주민들이 일궈낸 서독으로의 여행 자유 요구가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止揚)됨으로써 역설적으로 독일 통일을 일궈냈다는 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분단 독일과 통일 독일을 고찰을 위해서 전승4국과 양독2국 간 쟁점이 되어 온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하여 헤겔(G.W.F. Hegel)의 정(正)→반(反)→합(合) 변증법을 연구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동서독 분단뿐만 아니라 동서 베를린 분할이 고착화되다 보니 동독 주민들로서 가난한 1당체제의 동독보다 더 잘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서독에 가서 살고 싶은 열정이 솟구쳐 서독으로의 이주와 이탈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그하여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동독 당국과 소련으로서는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존 전승4국의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 소련과 동독 당국의 고립된 체제유지를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독 주민

들이 체제저항으로 자유를 갈구함으로써 베를린 장벽 해체에 이르렀고 결국 통일 독일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전승4국의 영토 획정은 전범국인 독일을 응징할 목적으로 그들의 계획적이고 강압적인 편리에 따른 동서독 분단과 더불어 동서 베를린 분할이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요체는 독일 국민, 특히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해체하여 소통과 협력의 가교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다.

이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로부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해체 시기까지 근 28년간 존재했던 동서 베를린이 주 연구 대상이자 그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는 전승4국이 독일 분단은 물론 동서 베를린 분할에 따른 결과적 실체로 대두된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베를린 장벽의 해체라는 특정 시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풀어야 했던 양독2국과 전승4국 간의 협상테이블인 2+4회담 등이 오버랩(overlap)되면서 분단 독일이 통일 독일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을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전전회담인 테헤란회담-얄타회담-베를린 공동선언-포츠담회담 등에서 분단국으로 각인되어왔으나, 패전 후 결국 승전4국에 의해서 동서독 분단과 동서 베를린 분할 등 2중분할로 강제적 분단으로 내몰렸다. 여기서는 독일을 분단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승전4국이 연합국 혹은 점령자로서 피점령국인 분단된 독일을 묶어두려는 패권전략이 정(正)인 것이다. 승전4국에 의한 독일의 패망과 동서독 분단으로 결과지어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국제사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소련 중심의 동·서 대립의 냉전체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소 양국은 각자의 세력과 영향력으로 양강블럭을 구축하며 전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 확산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전승4국 중 미국·영국·프랑스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체제구축에 나섰고, 이와 달리 소련은 1국1당주의라는 공산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를 소비에트 방식으로 묶어 패권적인 공산주의 독재정권 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은 미·소 중심 냉전의

산물로 '분단 독일'(divided Germany)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나, 독일 통일의 실마리는 역설적이게도 '분단 베를린'(divided Berlin), 특히 동서 베를린에서 풀렸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의 구축은 승전4국의 점령정책을 부정하는 반(反)으로 작용했고,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나 탈출을 궁극적으로 막으면서 독일 분열과 베를린 봉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소련과 동독의 전략적 강경정책이었다. 이 강경정책은 서베를린 경계에 이를 동안 약 4,500명이 동원되었고,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장벽의 길이는 40여km에 해당되는 장벽 구축 작업이었다.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은 미국의 경제 원조에 힘입어 자본주의 이념에 맞는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해 나갔던 반면, 동독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자 동독 정부와 소련은 더 이상의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서독은 1955년에 승전4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주권을 회복하고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할 만큼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서독 경제가 '라인강의 기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동안 동독의 경제 상황은 큰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서독으로 빠져나갔다. 반면 동독 정부와 소련은 너무 많은 동독 주민의 인구가 서독에 유출되고, 공산주의체제의 한계 속에서 동독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자 더 이상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서베를린 경계에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였다.

1989년 11월 9일 밤에 일어난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 동서독 주민의 왕래가 어려운 상태에서 동독 당국에서 여행 완화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동독 공산당'(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공보담당 대변인에게 발표하게 하는 우(愚)를 범한 것이 베를린 장벽 해체에 이르게 했다. 여행법은 11월 10일까지 공개를 금하였으나 1989년 10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동독을 단기간 통치한 정부 수반이자 SED 서기장으로서 크렌츠(E. Krenz)는 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여행법을 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려 했다(김영운·양현모 2009, 81). 그러나 동독 정부 당국의 대변인 발표보다는 여행법이 언제 발효될지 내

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휴가에서 돌아온 SED 당 대변인 샤보브스키(G. Schabowski)가 발표하게 이르렀다. 그는 ‘즉시, 지체없이’(sofort, unverzueglich) 국경개방이라는 말실수를 불러온 사건의 당사자이다. 샤보브스키의 엉뚱한 말실수가 결과적으로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止揚)되고 합(合)으로 승화되면서 동독 주민들에게는 동서독 국경개방 주장과 서독으로의 탈출로 이어지게 만든 주체적 행동 표출로 나타났다. 요컨대 여행법 관련 법령은 당(SED)이 아니라 동독 정부에 의해서 공표되어야 했다. 논의된 법령은 행정적 조치가 보완된 후에 공표되어야 했는데, 크렌츠는 정부보다는 당을 우선시해 절차 규정을 무시했다(김영운·양현모 2009, 81). 결국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그 이전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민주화 열풍을 넘어 1989년 9월 동독 주민들의 촛불시위로 표출되었고, 곧이어 베를린 장벽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었다. 특히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만큼, 동유럽의 자유화 물결 이후 SED의 샤보브스키 대변인 말실수가 초래한 것은, 그동안 동독 주민들의 강력한 여행의 자유 요청과 서독에 가고자 하는 갈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였다. 마침내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주민들의 즐기던 국경개방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다시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독일 통일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결국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양독2국과 전승4국 간의 협상테이블인 2+4회담 등과 중첩될 수밖에 없었다. 베를린 장벽의 해체로 분단 독일이 통일 독일로 진척되는 시점에서 전승4국은 더 이상 독일 분단과 베를린 분할을 강요할 수 없었다. 오히려 전승4국은 독일 통일에 맞춘 2+4회담을 수용해야 하는 역사적 실타래를 풀어야 할 책무를 떠맡게 되었다.

요컨대 여기서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상극적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실행 주체는 전자가 동독 당국이었고 후자는 동독 주민들이었다는 점이다. 동독 당국은 동독 주민들이 경제가 부강한 서독으로의 탈출과 이주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유출되니까 그것을 막고자 베를린 장벽을 쌓았고, 이는 동독 공산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의도된 장벽 건설이었다. 이에 비해서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1989년 9월 동독 주민의 촛불시위로 촉발된 사건과 맞물리며 11월 9일 초래된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기자회견에서의 말실수가 불러온 국경개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샤보브스키는 발표 전날 휴가 갔다 복귀를 한 상태로, 여행 조치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실수가 표출되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모든 동독 주민들이 국경검문소에서도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동아일보 1989/11/10)라며,¹⁾ 여행 제한 완화조치를 당장 국경개방으로 발표해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해체할 수 있게 만들었고 서독으로 자유 왕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II. 이론적 배경: 변증법

변증법²⁾이라는 말은 헤겔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며, 그 자체 인식 발전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모순에 대한 발전 논리이다. 그러므로 변증법이란 일상사 모순이 구조적으로 점철될 때 그 모순을 부정하는 특별한 논리인 것이다. 변증법은 모든 사물과 인간의 존재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발전과정은 헤겔의 변증법 철학, 즉 모순을 지양(止揚, aufgeben)하고 고차원적 방식에 이르게 도식화한 것이다. 지양은 낡은 것이 부정되어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부정을 발전의 계기로서 파악하고, 낡은 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 적극적인 요소가 새롭고 높은 단계로서 보완 유지됨을 의미한다. 시대적 산물의 완전한 존재로서 정(正, These)도, 그것과 상반되는 반(反, Antithese)과의 갈등을 통해 도전받게 되고, 합(合, Synthese)에 도달하면서 정(正)과 반(反)이 모두 배제되고 초월한다는 것이다.³⁾ 그러나 완전한 존재로서의 정(正)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합

1) <https://blog.naver.com/teliencie92/221582941136> (검색일: 2019/09/12).

2) 변증법에 관련해서는 중야 조(1983, 29-41)를 참조할 것.

3) <https://goldenblog.tistory.com/58> (검색일: 2020/10/12).

(습) 또한 모순적 면모를 지닐 수밖에 없어 모순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正)→반(反)→합(습)이 반복되다 보면 발전적으로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변증법 이론이다.

이와 같이 정(正)→반(反)→합(습) 3단계는 기존의 정(正)과 그것에 모순되는 반(反), 그리고 그 두 개의 판단을 종합한 보다 높은 판단의 합(습)에 이르고, 또다시 반복되는 변증법적 논리의 세 단계를 의미한다. 존재 자체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면, 존재는 적어도 발전의 제2단계에서는 반(反)으로서의 모순적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증법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즉 변증법은 모순의 실재를 인정하는 모순 논리로서 모순을 부정하는 특수한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 한 번 부정되어 궁극적 목표의 현안으로 지양(止揚)된다는 것, 즉 헤겔의 변증법 과정은 ‘부정의 부정’(否定の否定, negation of negation)⁴⁾을 통하여 어떤 긍정적인 것을 사유하려는 것이다. 헤겔은 변화가 중심테마라는 역사이론을 발전시켰는데(Baradat 1979, 156-157),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은 반대로 그 반대한 사실에 대하여 또다시 부정을 초래한다는 논리였다. 건설적 방법으로 부정과 변화를 사용되어야 한다는 헤겔의 사상은 보편적 의미에서 인류에게 가장 크게 공헌한 논리일 것이다. 헤겔에게 역사는 단순히 투쟁에 의해 초래되는 발전의 과정이었다. 그가 사용한 방법으로써 역사는 투쟁을 통해 진보와 발전을 쟁취함을 의미하나 그 투쟁이 반드시 폭력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변증법과 관련, 전승4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을 단죄할 목적으로 일정 부분 점령하고 더 이상 독일이 전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 이들 게르만 민족을 단죄할 목적으로 영토를 4분할(分割) 점령(동서독, 동서 베를린 각각)한 것이 정(正)으로서의 존립성과 현상유지를 가지는 것이다. 전승4국의 논리에 대한 부정(不定)으로서 소련과 동독 당국

4) 헤겔은 하나의 정립(These)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반정립(Antithese), 그리고 이 반정립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종합(Synthese)이라는 견해를 통해, 세계 전체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소위 트리아데(Triade)의 방식을 세웠다. <https://blog.naver.com/braveattack/10126700510> (검색일: 2020/11/12).

의 베를린 장벽의 구축은 공산정권의 패권을 내세우는 반(反)으로서의 현존성과 체제유지를 뜻한다. 반면 동독 주민을 위시한 동서독인들의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베를린 장벽의 구축에 의한 공산정권의 체제유지와 패권에 대한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止揚)하면서 통일 독일로서의 통합인 합(合)의 과정을 의미한다. 서독+동독(양독2국)과 전승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관계에서, 전승4국은 독일 점령과 독일 분단, 그리고 동서 베를린 분할로서의 점령과 지배의 당사자로서의 정(正)이다. 피점령지 동서독은 물론 동서 베를린, 특히 동독내 베를린을 둘러싸고 장벽을 구축한 소련과 동독 당국의 체제유지와 항구적인 지배를 꾀할 목적으로서의 전승4국 질서를 무너트리는 반(反)을 의미한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베를린 장벽 구축에 대해 장벽의 해체와 자유를 갈구해 온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의 이주와 탈출로서의 베를린 장벽 해체를 위한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지양(止揚)적 발전 논리로서 합(合) 과정의 행위자이다.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주민들에 의한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전승4국이 2+4회담을 통해 연합국 혹은 점령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독일 통일을 승인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분단 독일의 중심에서 베를린 장벽을 해체할 수 있었던 것은 동독 주민들의 1989년 9월 촛불혁명과 11월의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기자회견 말실수 등이 동시적으로 연결고리가 되면서 불러온 국경개방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전승4국은 연합국으로서 혹은 점령자로서 언제까지나 분단을 강요할 수 없었듯이 동서독 통일에 대한 약속도 없이 전범국 독일의 지위를 억누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분단 동서독과 같이 체제와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는 분단국이 있다고 할 때, 그 두 세력이 통일을 위해서는 각각 다른 관점이나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역학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분단 독일과 독일 통일로서의 변증법 적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서 독일은 승전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에 의해 분할되었으며, 그중 서독은 승전3국(미국·영국·프랑스)의 점령으로 45년(1945.8.~1990.10.3.)간 분단된 이후 동서독 중심의 통일을 성취하기까지 분단 상태가 지속되었다. 반면 동서독 통일이 되기까지 동독은 승전1국(소련)의 41년(1949.10.7.~ 1990.10.3.)간 점령지배를 받았다. 아울러 승전4국이 맺은 동서 베를린의 교류에 관한 ‘베를린 협정’에 따라, 소련은 ‘서베를린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협정’(1971.9.3.~ 1990.9.12.)을 유지해왔었다. 1970년 3월부터 협상해오고 1971년 9월 3일 채택된 ‘베를린 지위에 관한 전승4국 협정 체결’인 이 협정의 주요 골자는 4대강국의 책임과 권한의 확인, 서독과 서베를린을 오가는 통행문제, 서독과 서베를린의 관계,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과 동독방문, 서독의 서베를린에 대한 대외대표권 행사, 서베를린에서 소련의 영사대표권 획득 등이 그것이다(김영운·양현모 2009, 350).⁵⁾ 이 베를린 협정이 발효되자 서독인 및 서베를린인들은 대거 동독으로 몰려들었고, 1988년 동독 방문 건수는 900만, 자동차 및 열차 편을 이용해 서베를린을 오고 간 통과여행 건수는 2,700만에 달했다. 그러나 동서독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점진적 개선책들은 체제 속에 갇혀 지내는 동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것이었다. 1989년 9월, 동베를린을 비롯한 동독 전(全) 지역에서는 수십만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정권 타도 및 서독과의 재통합을 외쳐댔다. 이런 군중시위가 도처에서 발발하는 와중에 SED는 시국 대처에 대한 모색으로 여행 완화조치를 내세우고자 했다. 그런데 그 당시 SED의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기자회견 발언에서의 여행 완화조치는 그동안의 제한적인 여행조치에 조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었고, 국경개방이나 장벽 제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⁶⁾ 즉 출국 허용 지점

5) 동서 양 진영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영국·프랑스는 소련과 베를린 협정을 맺었다. 서방인들이 보다 쉽게 서베를린을 출입하고, 서독 및 서베를린인들이 장벽 너머 동독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베를린 협정 세부 실천조항들은 동·서독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2021b010> (검색일: 2020/10/17).

을 전 국경검문소로 확대한다는 점, 여권 발급 기간의 단축, 그리고 향후 여행 동기나 친인척 관계 같은 조건을 경찰 당국에 제시하지 않아도 외국 여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도가 새로 포함되었을 뿐 획기적인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 샤보브스키는 각료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 휴가를 다녀온 직후라서 당초 이 여행 완화조치가 SED의 승인을 거쳐 다음날인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터였다. 그는 베를린 장벽을 개방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SED와 무관하게 잠시 머리를 굽적이며 머뭇거리다가 자신 없는 태도로 “내가 아는 한 즉시, 지체 없이”라는 답변을 토해냄으로써 오히려 독일 통일에 불을 지를 것이었다. 여하튼 1989년 11월 9일 샤보브스키의 기자회견에서의 말실수가 불러온 “즉시, 지체 없이” 국경개방 허용 발언은 동서 베를린을 가르고 있던 모든 베를린 장벽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빠른 속도로 철거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이후 3일간 200만이 넘는 동베를린 및 동독인들이 자동차·도보·지하철·고가철도 등을 통해 서베를린으로 몰려들었다. 그러자 동독 임시정부는 서베를린 및 서독인들에 대해 자유로운 동베를린 방문을 허용했고, 1990년 1월 1일에 이르러 동서 베를린 간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⁷⁾

둘째, 독일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승전4국 연합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동서독과 동서 베를린으로 이중분할되었으니, 이는 분명 외세에 의한 분단이였다. 양독2국의 거주민들이 서로를 싫어해서 나뉜 게 아니라 그냥 전범국으로 전전(戰前) 회담의 산물로 승전4국이란 외세의 간섭과 분할 점령으로 찢어졌을 뿐이었으니 구태여 양독 주민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며 미워할 명분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베를린시의 분할 점령은 1944년 런던에서 미국·영국·소련 간에 맺어진 협정에 기초한 것⁸⁾으로, 독일을 전승4국의 4개의 점령지로 나누며 소련 점령지

6) <https://blog.naver.com/teliencie92/221582941136> (검색일: 2019/09/12).

7)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2021b010> (검색일: 2020/10/17).

에 둘러싸인 베를린을 독자적으로 나눈다는 영국의 안을 포츠담회담에서 현실화한 것이었다. 베를린과 관계된 이 협정의 특징은 서방 진영이 베를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련의 보증을 문서로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⁹⁾

셋째, 전후 동서독의 정치체제와 국내 정치과정은 승전4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승전3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중심으로 한 서독과 소련의 소비에트 방식으로 성립된 동독의 경우, 각기 다른 정치이념과 지배체제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했다. 이는 1949년 5월 23일 서독 기본법 공포로 건국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미국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한 것과 반대로, 1949년 10월 17일 건국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위성세력으로 분단되었음을 의미했다(Schwarz 2010, 133-153; 신종훈 2013, 404). 양독의 지배체제는 서독의 대의민주제 특징을 지닌 의원내각제와 다당체제, 그리고 동독이 이에 대비되는 SED 독재의 1당체제로 각각 상이하게 분열됐다.

넷째, 과거 독일의 수도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승4국에 의한 동독 내 베를린을 동서 베를린으로 분할한 것은 계획적이고 강압적인 독일의 이중분할이자 영토 분열을 획정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독일 분단이 강요되면서 베를린(Berlin)은 명목상 수도일 뿐이고, 실질적 법적 수도(首都)로서의 기능은 본(Bonn)이 가지고 있었다. 베를린은 소련 관할 지역인 동독에 섬(island)처럼 둘러싸여 동서독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전승4국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동서독으로의 분단을 넘어 과거 독일의 수도였다는 이유만으로 동독내 베를린을 동서 베를린으로의 분할한, 이런 이중 분단이 결과적으로는 독일 통일로 가는 단초가 되었다.

다섯째,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승전4국에 의한 독일 4분할과 베를린 4분할로 분단시킨 결정은 오히려 동서독 주민들

8) cafe.daum.net/metour/5xj8/37 (검색일: 2020/11/19).

9)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2021b010> (검색일: 2020/10/17).

에게 반감 가져오기에 충분하였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구축이 독일 통일 과정의 반(反)으로 작용했으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면서 독일 통일은 동서독 주민들에게 ‘부정의 부정’으로 합(合)이 돌출되면서 통일 열정을 불어넣어 주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승전4국에 의한 동서독으로의 독일 분단은 불가피하였으나, 그중에서 분단의 핵심은 직전 독일 수도였던 베를린마저 동서 베를린으로 분할한 데 있었다. 그러므로 베를린 분할의 향방은 향후 독일 통일을 위한 직접적인 단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일 분단→ 동서독의 존재→ 분단 동서 베를린→ 베를린 장벽 구축→ 베를린 장벽의 해체→ 독일 통일 등으로 급변하는 상황 변화를 보여주었다.

Ⅲ. 반(反)으로서의 베를린 장벽의 구축

첫째, 베를린 분할과 그 일환으로서의 베를린 장벽의 구축은 테헤란 회담-알타회담-베를린 공동선언-포츠담회담 등 독일 수도 베를린과 관련해서 승전4국 중심의 전전(戰前) 회담 등에서 항구적인 유럽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레짐·체제에 대한 반(反)으로 작용해 그것에 부정하면서 소련과 동독 중심으로 소비에트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의 구축이 이뤄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전전(戰前)인 1943년 11월 28일~12월 1일에 개최된 테헤란회담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영국 처칠 수상·소련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 등 3국 정상이 독일을 분할하는 공동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 종반인 1945년 2월 4일~11일에 개최된 알타회담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영국 처칠 수상·소련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 등 3국 정상이 프랑스(추가)¹⁰⁾의 개입과 함께 독일을 4대 점령지역으로 분할 및 독일의 완전한 비무장화 및 비군사화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나치 독일의 최종 패배와 점령 등 전후

10) 원래는 미·영·소 3국에 의한 전범국 독일의 분할 점령이었으나 프랑스가 자신들 또한 승전국이므로 분할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미국과 영국이 점령지역 일부분을 떼 내 프랑스에 넘겼다.

처리 문제에서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정태일 외 2020, 100-101). 그러던 차에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은 연합군의 점령으로 무조건 항복하였고, 5월 9일 독일은 소련군에 항복하여 동부 전선의 모든 영토를 빼앗겼다.¹¹⁾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승전4국은 6월 5일 '베를린 선언'(Berliner Erklarung)¹²⁾을 통하여 점령국 관리위원회를 설치, 독일의 최고통수권을 인수하였다. 1945년 7월 26일 종전(終戰) 후 3국 정상(미국 트루먼 대통령·영국 애틀리 수상·소련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¹³⁾ 간에 열린 포츠담회담에서 논의된 연합국 중심의 승전4국에 따라,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었고, 독일 수도였던 베를린조차도 동서 베를린으로 분할되었다. 문제는 동쪽의 소련 구역 내에 독일의 상징인 수도 베를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베를린은 예외로 하여 같이 분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연합국인 승전4국은 독일 전역을 미국+영국+프랑스 점령지역으로 구성된 서독과 소련 단독 점령지역으로 구성된 동독으로 분할하면서,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동베를린은 동독령, 서베를린은 서독령으로

11)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국에 의해서 독일 영토 또한 4분 되었는데 전체적인 구도는 소련의 몫이 미·영·프 3국의 몫의 합보다 조금 작은 구도였다. 알타회담에 따라 폴란드로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으로 동방 영토가 넘어갔으나 넘겨준 과정은 소련이 동독 지역+구 동방 영토를 점령하고 그 중 오데르-나이세 선 동쪽 지역을 폴란드에게 넘겨준 것이다. 분할점령 당시 소련 점령 지역(약 22만 3천km²)은 미·영·프 점령 지역(약 24만 5천km²)보다 조금 더 작다. 베를린 또한 마찬가지로 소련 관할인 동베를린(약 401km²)이 미국·영국·프랑스 관할인 서베를린(약 490km²)보다 조금 더 작다.

12) 전승4국 점령국 최고사령관들이 “베를린 선언”에 서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독일 패전에 관련한 선언: 전승4국은 독일에 관한 최고행정권을 인수함, ②4대 점령국 최고사령관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일 전체에 관한 최고권력행사로서 모든 당면문제를 관장함, ③점령지역의 설치, 1937.12.31. 당시 국경내 독일은 4대 점령지역으로 분할됨, ④베를린은 4대지역으로 분할되어 ‘연합국사령부’가 행정 관리 등이 그것이다.

13) 3국 정상의 주요관심사는 패전국 독일의 즉각 통치, 폴란드 서부 국경, 오스트리아 점령, 동유럽에서의 러시아 역할, 배상금, 일본과의 전쟁 등이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독일이 병합해 참전(參戰)한 것처럼 독일 분할 당시 전승4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나 전승4국이 베를린 회의(1954)를 개최한 뒤 국민합의의 국민투표 치르고 각국과의 사이에 영세중립 조약(1955년 5월 15일)이 조인되었다(박수희 2021).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검색일: 2020/09/23\)](https://namu.wiki/w/베를린_장벽(검색일: 2020/09/23)).

4분할을 하게 된다. 결국 동독 내에 동서 베를린의 존재는 서베를린이 소련군 점령 지역인 동독에 섬처럼 떨어짐으로써 동독과 대치 국면이 불가피했으며 훗날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포츠담조약에 따라 승전4국이 독일을 4개로 분할하여 관리하던 중 소련의 노골적인 팽창정책은 승전4국 중 전승3국(미국·영국·프랑스)이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독일분단과 동서 베를린의 분할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 구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베를린의 경우, 포츠담회담에 의거해 전승3국 군대가 서베를린을 장악하고 소련군이 동베를린을 장악한 반면, 서독은 전승3국 관할 지역을 합쳐서 동독과 분리되었다. 소련 점령 지역인 동독에 속한 베를린은 1618년 30년 전쟁¹⁴⁾ 이후 독일을 주도 하였던 프로이센의 오래된 수도(首都)이자 독일의 전통적 수도(首都)라는 상징성으로 승전3국이 소련에 압력을 넣어서 분할한 결과이다. 동독의 지배자인 소련은 물론이고 서독을 통치하게 된 나머지 연합군들도 베를린을 포기하지 못하고 동서 베를린으로 양분되는 선에서 합의하게 된 것이다. 점령지역에서 전승3국과 전승1국(소련)의 각각 상이한 점령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련이 동독 지역에 베를린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독일의 분단은 더욱 공고화됐다. 서베를린의 경우 영국군·프랑스군·미국군의 육군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나뉘고, 출입시 검문을 하는 것도 서독 국경경비대(BGS)가 아닌 미국·영국·프랑스 3국 육군이었고, BGS가 그 저 보조에 불과한 반면, 동독의 수도 역할을 한 동베를린 역시 공식적으로는 동독 정부의 관할지역이 아닌 소련군의 점령지역이 되었다.¹⁵⁾ 게다가 동독 내에 속한 서베를린이 동독과 동베를린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으며, 서독으로서는 서베를린이 월경지가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노골적인 팽창정책은 서방 점령국인 전승3국이 소련의 팽창을 막는 역할로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동베를린과 달리 서베를린을

14) 30년 전쟁은 1618년 독일에서 일어나 유럽 대륙 전역으로 확산될 당시 최후·최대의 종교전쟁이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

15) https://namu.wiki/w/베를린_장벽(검색일: 2020/11/13).

중심으로 서방 점령지대의 통합을 가져왔다.

셋째, 소련의 노골적인 팽창정책에 대해 승전4국 중 서방3국이 런던 회담을 개최해 소련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소련이 반대하여 서방3국이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화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베를린 봉쇄’(Berlin Blockade)¹⁶⁾를 취한 결과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2월 전승3국은 소련을 배제한 채 런던 회담¹⁷⁾을 개최, 소련의 팽창에 적극 대응하고자 독일정책에 대한 공동 방침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48년 6월 서방측 연합국이 새로운 화폐인 ‘독일 마르크’(DM)를 3개의 서부지역에 통용키로 합의하는 통화개혁에 대한 소련의 저항은 결정적으로 독일이 분단국가의 고착화인 베를린 봉쇄로 나타났다. 이런 소련의 봉쇄 전략은 1948년 3월 20일 1차 런던회담에 대한 보복 조치였으며, 결과적으로 3월 30일 점령국 관리 위원회 탈퇴와 더불어 베를린의 기존 수송 및 교통 통로 전부 폐쇄되었다. 6월 16일에는 베를린의 통합사령부 해체로, 사실상 전승4국의 점령태세는 끝나고 미·소간 냉전이 시작되었다.

넷째, 1949년 9월 7일 서독 정부의 탄생과 10월 7일 동독 정부의 수립은 동서독을 분단하고 급기야는 베를린도 분할시켜 결과적 소산으로 소련과 동독은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전전(戰前) 수도인 베를린도 전승4국에 의해서 4등분 됐다. 통상 서독과 서베를린을 전승3국이 점령·관리하고, 동독과 동베를린을 소련이 점령·관리한 결과지만, 소련과 동독이 공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단 독일’의 상징인 동서 베를린 분단선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동인

16) 소련의 베를린 봉쇄정책은 승전3국(미국·영국·프랑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악했던 서베를린의 관할권(1948년 6월 24일~1949년 5월 12일 시기)을 포기하도록 소련에 의해 강요된 조치였다.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강행하자, 미국은 서베를린인들의 민생을 위해서 자국 비행기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였다.

17) 런던회담은 런던에서의 1차 회담(1948년 2월~3월)과 2차 회담(1948년 4월20~6월 2일)으로 개최된 6개국(미·영·프·베네룩스 3국; 소련은 불참)회담 결과로, ‘런던의정서’가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 따라 서독에서 연방정부의 수립이 추천되고 독일이 마샬플랜과 루르문제에 참여하되, 미국은 유럽부흥계획에 서독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프랑스도 기존의 독일정책 포기에 중점을 두었다.

이 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BRD, 서독) 정부 탄생으로 1949년 5월 8일 기본법(헌법)이 제정되어 5월 23일 선포하고, 9월 7일에 본(Bonn)을 임시수도로 정해졌으며, 또한 1949년 10월 7일 헌법 제정으로 탄생한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 정부는 동베를린이 수도로 정해졌다(김영운·양현모 2009, 349). 독일은 서독에는 BRD가, 동독에는 DDR이 각각 성립되면서 전승4국에 의해 양독 간 분단으로 더욱 고착화됐다. 서방측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이 1950년 12월 4일 케난(G.F. Kennan)의 소련 봉쇄론과 더불어 1949년 4월 4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된 데 비해, 소련과 동독 등 동구 주변 국가들은 1955년 5월 14일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동서독 분단과 더불어 1961년 8월에는 ‘분단 독일’의 상징인 동서 베를린 분단선에 베를린 장벽이 세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해체로 독일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하튼 동서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 국제적인 냉전체제 속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이던 소련은 동독 및 동유럽의 자유화 내지 민주화라는 국제질서하에서 반(反)으로 등장은 물론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과 여행 자유화의 어려움이 증폭되어 동독 당국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

다섯째,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구축 때까지 동독인 400만 명이 베를린 경유 서독행을 택해 탈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매년 0.7~3만 명이 서독행 하여 베를린 장벽 해체 시까지 총 50만 명이 동독을 탈출하였다.¹⁸⁾ 다른 자료에 의하면, 동독의 경제정책 실패로 1950년부터(1950년대 초에는 상당수가 미등록자여서 제외)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구축될 때까지 이탈 동독인의 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22만 명, 총 256만 명에 달하였다(Wendt 1991, 390).¹⁹⁾ 한편

18) <https://blog.naver.com/shkim5122/221794004273> (검색일: 2021/02/15).

19) 이와 다른 자료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동독 탈출자는 동서독 분단 직후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 연간 약 15만 명에서 약 40만 명에 이르렀으며, 장벽설치 후 통일 전까지 매년 평균 2만 명 정도의 동독 주민이 동독을 탈출하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33); 이는 1949년 분단된 이후부터 베를린 장벽 설치 이전 시기인 1950년~1961년 해당시기 동독에서 서독으로

1961년~1989년간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국경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1천 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이탈로 인해 동독의 인구유출과 경제안정이 어려움이 가중되자, 동독 정부는 철조망, 포탑 등으로 베를린 장벽을 국경에 구축해 동서 베를린을 완전폐쇄하고자 했다. 이 장벽은 동독의 정치선전과는 달리 외부의 적에게 대항하기 위한 방어개념의 장벽이 아니라, 동독 국내를 지키기 위한, 동독 자국민의 서독 탈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그리고 동독 공산체제의 반대를 막기 위한 장벽이었다(정주신 2020b, 159-160).²⁰⁾ 동독 측 ‘철의 장막’ 지역에서 민간인 통제구역은 8km 정도였는데, 동독 측 국경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도 있고 지뢰밭도 있고 철조망도 있고 무장경비대도 돌아다녔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 사이에 첩보원을 심어놓고 동독 탈출 계획 등을 밀고하게 하는 동독 비밀경찰이었던 슈타지(Stasi, 국가보안부)는 주민 탄압을 일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정주신 2020b, 159).

여섯째,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세상살이의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동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탈주자가 늘어나자, 동독 정부는 1961년 8월 13일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탈출을 방해하기 위해 야밤에 기습적으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에 베를린 장벽을 구축했다. 이처럼 분단 이후 동서독 간 이주²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설치라 하겠다(김현정 2020, 188). 그것이 전승4국의 의도에 반(反)으로서 작용한 것은 당시 흐루쇼프(N. Khrush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당시 베를린 장벽 건립을 지시한 동독 초대 서기장 울브리히트(W. Ulbricht)는 베를린 장벽을 구축할 정도로 무자비하

이주한 인구 규모는 매년 32만 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김현정 2020, 187).

20) heritage.unesco.or.kr/베를린-장벽의-축조와-붕괴-그리고-1990년-.. (검색일: 2021/01/23).

21) 장벽설치 이전 기간(1950년~1961년)에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주자가 400,315명인 반면, 동독의 기술자·전문직업인·지식인들 250만 명을 포함해 3,854,522명이 서독행을 택함으로써 동독의 경제력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김현정 2020, 187).

고 독선적 행동에서 기인한 셈이었다. 이를테면 흐루쇼프가 장벽을 동독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흉물스러운 물건"으로 평가했으며, 울브리히트도 "이건 우리가 이념 경쟁에서 졌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자충수인데..."라고 스스로 꾸짖었다.²²⁾ 그 외에도 헝가리 인민공화국 서기장이었던 야노시(K. János)는 '장벽 건립으로 공산주의운동 전체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 케네디(J.F. Kennedy) 대통령도 당시 서베를린 방문에서 장벽 세운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²³⁾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은 동서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동서 베를린을 가로지른 냉전의 상징으로 보고 베를린 장벽을 '반파시스트 방벽'(Antifaschistischer Schutzwall)으로 폄하했다.²⁴⁾ 여하튼 동베를린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늘자 이를 봉쇄하기 위해서 동독 정부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웠는데, 이처럼 주민들의 행동에 역행하는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독일 통일의 단초가 되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끝없이 이탈하는 모양새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체제에 대한 동경과 민족적 동질성 유지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자발적으로 1990년 서독체제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베를린 장벽 구축은 소비에트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던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억압을 보여주는 전세계적인 공산 독재의 상징이자 그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취약한 공산주의 정권의 폐단으로 비유되었다.

일곱째, 1961년 8월 13일에 구축된 베를린 장벽은 독일과 유럽, 나아가 이 세계의 정치적 및 군사적 분단을 공고히 만드는 상징(symbol)이 되었으나, 오히려 베를린 장벽이 강고하게 보였을 정도였지 오히려 쉽게 허물어지는 진리를 보여준 셈이었다. 베를린 장벽의 총 길이는 약 155km로, 그중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두 도시를 둘로 나누는 동서 베를

22)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https://namu.wiki/w/베를린_장벽) (검색일: 2020/10/03).

23)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https://namu.wiki/w/베를린_장벽) (검색일: 2020/09/23).

24) [namu.wiki/w/베를린 장벽](http://namu.wiki/w/베를린_장벽) (검색일: 2020/09/16).

린 경계에 세워진 장벽은 길이가 약 43km, 높이 3.6m, 콘크리트 장벽이 106km 정도 뻗어 있었고, 나머지 49km는 철조망이 3겹으로 둘러싸여 있었다.²⁵⁾ 동독 정부는 동서 베를린 사이에 길고도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을 쌓게 되었는데, 애초의 가시철조망 울타리는 체계적으로 콘크리트 장벽으로 변모하였다. 그 장벽은 다시 폭 15m에서 150m 이상에 이르는 ‘죽음의 띠’(death strip)로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감시탑·전기신호 울타리·쇠사슬에 묶인 경비견, 차량의 진입을 가로막는 도랑, 사살하라는 ‘명령’(Schiessbefehl)을 받은 무장 경비병들이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²⁶⁾ 이는 곧 동서 냉전의 상징물이자 독일 통일 상징물로 각인되었고, 이 장벽을 쌓은 후로는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을 통해서만 허가를 받아 왕래가 허용되었다. 베를린 한가운데에 존재했던 베를린 장벽을 구축할 당시 브란트(W. Brandt)는 이때 서베를린 시장이었지만, 이후 수상 재임시 동방정책을 주창하여 독일 통일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IV. 합(合)으로서의 베를린 장벽의 해체

첫째, 베를린 장벽의 해체를 통한 동서독 통일의 계기는 애초 승전4국의 하나인 소련의 공산체제 유지가 경제적 위기를 자초한 결과로써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독일 통일의 전조가 되었다.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의 개혁과 개방 정책은 기존의 공산화 정책을 뒤엎는 혁명이었고 동서진영 대립의 상징인 동서독을 흔들었다(김주삼 2020, 127).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²⁷⁾을 포기하여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민주혁명을

25)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https://namu.wiki/w/베를린_장벽) (검색일: 2021/02/21).

26) heritage.unesco.or.kr/베를린-장벽의-축조와-붕괴-그리고-1990년-.. (검색일: 2021/1/23).

27)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공산주의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진영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 독트린에 따라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는 중앙 유

불러오게 한 장본인이었다. 이는 또한 탈공산화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근거를 제거하였고, 동유럽의 민주화 움직임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 요구에 기인된 결과였고, 동독 주민들의 무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정주신 2020b, 161). 그는 1989년 6월 12~15일 서독 방문시 베를린 장벽의 조속한 제거 가능성 시사 등 그의 올곧은 개혁 의지와 독일 통일 관련성 발언 등 베를린 장벽의 해체를 앞당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1989년 2월 고르바초프의 결단은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철수²⁸⁾하고, 1989년 봄 공산국가였으나 오랜 반공 투쟁을 벌이던 폴란드의 민주화가 가시화되고, 헝가리에서 공산주의와 무관한 쉬로시 정부가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²⁹⁾ 1989년 5월 헝가리가 국경개방을 단행하자 유례없이 동독 주민들 수백 명, 수천 명이 헝가리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7월 17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에 설치되었던 철책이 철거되자 동독 주민들은 오스트리아로 피난 후 서독으로 갔으며, 이로부터 동독 주민들의 피난 물결은 점점 더 커졌다. 이처럼 동독인들의 대거 동독 탈출은 베를린 장벽 해체와 독일 통일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다.³⁰⁾ 이런 일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개방 발언은 냉전이 해체되는 서막을 알렸다(정주신 2020b, 161). 그러므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해체의 배경 이면에는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및 동유럽 및 동독에 대한 불간섭 선언, 동독 주민의 서독 탈출과 민주화 요구 시위에 불 당기는 힘을 모으는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베를린 장벽의 해체로 그동안 닫혀있던 ‘브란덴부르크 문’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되었고,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련 최고통치자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비에트체제하의 동유럽 공산당 독재를 무너

럽국가에 대한 소련의 무력개입의 근거가 되었는데, 그 사례로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을 무력개입으로 저지했다.

28) 10년간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결과 연 65만 병력을 투입해 전사자 13,000여 명, 부상자 53,000명을 기록했다.

29) blog.naver.com/gustap83/221406859314 (검색일: 2020/04/24).

30) blog.naver.com/gustap83/221402745534 (검색일: 2020/04/24).

트리코 민주화된 폴란드, 헝가리 등이 서독으로 하여금 동독의 민주화는 물론 동독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생겼다. 이처럼 동유럽의 대변혁은 궁극적으로는 베를린 장벽 해체와 독일 통일의 단초로 이어질 수 있었다(정주신 2020b, 161).

둘째, 동유럽의 민주화와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호네커(E. Honecker)나 크렌츠(E. Krenz)가 연달아 사임(辭任)하는 등 결과적으로 베를린 장벽의 해체와 함께 독일 통일로 이어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1년부터 동유럽을 강타한 민주화 바람으로 시작된 베를린 장벽 해체는 1989년 동독의 지도자로 군림했던 호네커 정부를 무너뜨릴 때까지 이어진 결과였다. 1989년 9월에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월요 시위가 기폭제가 되어 동독 전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번진다. 이 여파로 발생한 호네커의 실각(失脚)을 전후로 동독 사람들은 언론 자유화, 여행 개방을 주제로 매주 마다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동독 지도부는 소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고르바초프의 동독 불간섭 정책은 확고했다. 결과적으로 동독 당국도 1989년 11월 9일 오후 7시경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여행 자유화 정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³¹⁾ 동독의 공산당 통치에 대항하며 항의가 일어난 촛불혁명 직후인 1989년 10월 18일에 호네커는 강제적으로 퇴임당하고, 그 후임 크렌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면서 독일 통일의 여명이 열리게 되었다(정주신 2020b, 161). 동독 주민들의 수많은 항의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크렌츠는 10월 18일 취임을 강행했지만,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해체로 그의 권력도 무력화되면서 12월 3일 단기간에 서기장에서 퇴진하였다. 11월 7일 크렌츠는 정치국의 3분의 2와 함께 슈토프(W. Stoph) 수상과 그의 내각의 사임을 인정하였다. 동독 중앙위원회가 크렌츠를 당서기장 직위에 재선출한 것은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 방지용 여행 조치 완화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크렌츠 SED 서기장은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재개하는 임무와 관련해

31)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https://namu.wiki/w/베를린_장벽) (검색일: 2020/10/03).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주민들의 형세를 막기 위한 서독 여행 새 규정 도입 실패와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말실수 발생 등 오히려 부작용으로 줄지에 되돌아왔다. 1989년 11월 9일, 호네커가 실각하고 크렌츠가 동독 SED 서기장 및 수상에 취임한 이 과도체제 시기는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동독 정부의 서독에 대한 흡수통일과정을 의미한다.

셋째, 베를린 장벽 해체의 발단은 동독의 모든 국경선 개방의 수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SED의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말실수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독일 통일의 서막이 이뤄지게 됐다(정주신 2020b, 162-163). 이를테면 1989년 11월 9일 결정된 여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샤보브스키의 기자회견 말실수는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물론 독일 통일 쟁취에 결정타가 되었고, 오히려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앞당기게 했다. 11월 9일 오후 7시경, 샤보브스키는 SED 중앙 위원회의 정식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독 내에서 국경선 개방과 관련, 정부의 여행 자유화 조치 실시에 대해서, 그는 “즉시, 지체 없이”라며 동독 국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검문소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³²⁾고 당시 기자들에게 엉뚱한 말실수로 대답했다. 그 결과 동독은 베를린 장벽의 모든 국경선 개방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여행 제한 완화조치와 달리 국경개방이라는 말실수 발생 이후 로이터 통신,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언론들까지 앞다투어 동서독 국경개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³³⁾ 그날 밤 동독 주민 수천 명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면서 “즉시, 지체 없이”의 국경개방을 요구하자, 동독 경비대들은 국경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곧바로 무너졌고, 세계사의 흐름은 완전히 독일 통일의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동독 정부가 국경의 개방을 인정함에 불구하고, 샤보브스키에 의한 말실수에 대한 언론들의 특보 타전(打電)이 수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자발적인 탈출을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러한

32) <https://hyuck99tvnews.tistory.com/26> (검색일: 2020/07/22).

33) <https://hyuck99tvnews.tistory.com/26> (검색일: 2020/01/30).

징조는 1985년부터 소련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과 1989년 동구유럽 개혁으로부터 나왔다. 이는 베를린 장벽의 해체 조짐의 계기로 작용하였고,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통일 여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1989년 11월 9일 이후 동서 베를린을 가르고 있던 모든 베를린 장벽이 동독 SED나 서독은 물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빠른 속도로 철거되었다. 이날 이후 3일간 200만이 넘는 동베를린 및 동독 주민들이 자동차·도보·지하철·고가철도 등을 통해 서베를린으로 몰려들었다. 그러자 동독 임시정부는 서베를린 및 서독인들에 대해 자유로운 동베를린 방문을 허용했고, 1990년 1월 1일에 이르러 동서 베를린 간의 대규모 인구가동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베를린 장벽의 해체 이후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공식 선언된 이후에도 계속 장벽과 제반 시설물에 대한 철거, 끊긴 도로와 철도의 복구가 계속되었다. 베를린市 중앙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과 나란히 뻗어 있던 장벽을 포함한 전(全) 구역의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었다.³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을 향한 길을 열었다. 장벽 제거, 통일 논의와 더불어 그동안 베를린을 분할 관리해온 미국군과 영국군, 프랑스군, 소련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베를린市의 경계 업무를 독일 측에 완전히 인계했다.³⁵⁾ 1990년 10월 3일 통일은 동독의 소멸과 서독의 일방적인 동독 흡수통일, 통일을 앞둔 8월 23일 동독 의회의 동독의 행정 구역을 전쟁 전의 복귀 결정으로 BRD(서독)이 옛 동독을 이루는 5개 주의 연방 가입을 받아준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상징하는 동독을 서독이 일방적으로 흡수한 결과, DDR(동독)이 사라진 것이다. 동독은 1949년부터 1952년까지는 5개 주³⁶⁾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52년 7월 2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5개 주가 폐지

34) cafe.daum.net/novelworld/RZh/16 (검색일: 2021/02/15).

35) namu.wiki/w/베를린 장벽 (검색일: 2021/01/18).

36) 동독은 본래 5개 주(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였으며, 통일 후 회복하였다.

되고 14개 구(Bezirk)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90년 7월 22일 인민의 회가 채택한 법률에 따라 14개 구가 폐지되었으며 5개 주가 원래대로 회복하였다. 한편 동·서독 재통합을 다룬 협약 조항에 따라 베를린은 다시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되었다. 1991년 6월 20일 재통일된 독일의 의회는 독일 정부를 베를린으로 옮긴다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검문소들이 생기면서 베를린은 실제적인 단일도시가 되었다.

다섯째,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1989년 9월의 촛불시위와 11월 9일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 기자회견에서의 말실수가 부른 나비효과에 기인된다. 촛불시위 전후부터 베를린 장벽의 해체시기까지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이주 및 탈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1989년 9월부터, 동베를린을 비롯한 동독 전 지역에서는 수십만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정권 타도 및 서독과의 재통합을 외쳐댔다. 예컨대 1989년 9월 3일 헝가리에서 출국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수가 5,000명으로 집계되고 매일 500명이 추가됨, 9월 10일 헝가리 정부는 동독 시민의 출국 여행을 허용함, Prag 주재 서독대사관 경내에 몰려든 피난민의 수는 약 900명으로 늘어났고 Warschau 주재 서독대사관의 피난민 수는 400명으로 증가됨, 9월 27일 Leipzig의 Nicolai 교회에서 평화예배를 마친 후 대규모 항의 행렬을 벌임, 9월 30일-10월 1일 동서독 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동독 대사관 체류 피난민들을 출국 여행시킴, Prag에서 5,500명, Warschau에서 약 800명이 동독 열차 편으로 서독에 출국 여행할 수 있었음, 9월 말까지 약 25,000명의 동독 출신 이주자들이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옴, 10월 3일 Prag에 또다시 6,000명의 피난민이 운집했으나 동독은 이들의 폴란드행 여행을 막음, 10월 4일 동독 정부가 다시 피난민의 출국 여행을 허용해 약 7,600명이 특별열차 편으로 동독을 통과하여 서독으로 옴, 10월 9일 Leipzig에서 평화예배를 마친 후 50,000명이 개혁과 평화적 대화를 주장하며 시위함, 그 이후 월요일마다 Leipzig에서 다수주민들

37)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2021b010> (검색일: 2020/10/17).

이 참여하는 “월요데모”가 벌어지고 다른 곳에서도 시위가 잇따름, 10월 15일 가을 방학이 끝난 후 피난 물결이 폭증해 버림, 11월 3일 동독의 새로운 여행규정으로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를 거치지 않고 동서독 국경을 우회할 수 있게 됨, 주말을 이용하여 15,000명의 피난민이 Bayern으로 오고 Prag 주재 서독대사관으로부터 특별열차를 이용하여 5,000명이 서독에 올 수 있었음, 11월 9일까지 모두 40,000명이 이 경로를 이용하여 서독으로 옴, 11월 9일 동독은 서독과 서베를린에 대한 모든 국경을 개방함, 11월 10일 동독 국경수비대원들이 동서독간의 새로운 국경통과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기 시작함, 베를린의 대축제 방문객이 줄을 잇고 대규모 피난 행렬이 계속됨, 11월 13일 동독의 국경개방 이후 3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독 및 서베를린으로 와 소풍을 즐김, 서독으로 처음 여행온 동독인들에게 100 DM의 환영금이 지불됨, 대다수 도시들은 경미하나마 추가적인 환영금을 지불함, 동서독 간의 차단지역은 철폐되고 사격 명령은 드디어 그 효력을 잃게 됨 등이 그것이다(주독대사관 1991, 101-110).

여섯째,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 베를린 장벽의 해체의 원인을 제공하였듯이 베를린 장벽의 해체 또한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전승4국의 동의가 관건이었다. 그 인과관계는 베를린 장벽의 해체가 전승4국의 회담체인 2+4회담³⁸⁾으로 탈바꿈돼 독일 통일이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전승4국도 갑작스러운 독일 통일을 매우 걱정하듯 지켜보았다. 더욱이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 기자회견의 말실수는 이미 독일 통일이란 대세를 뒤엎을 수 없었고, 동독 당국도 베를린 장벽 해체 이후 그 도도한 독일 통일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막상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고서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주변 유럽 국가의 행태는 각종 핑계를 대기 일췌이며 독일 통일의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다(정주신 2020b, 174). 다만 미국만은 유일하게 1989

38)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1990년 '2+4'회담 일지는 다음을 참조할 것(정주신 2020b, 169-170); 그리고 2+4회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정주신 2020b, 167-171).

년 봄 동독의 사태 주시와 베를린 장벽이 해체 예견하며 독일에 협력하는 편이었다(박휘락 2020, 258). 미국으로서는 독일 통일에 협력적인 독·소 관계의 강화는 물론 독일 통일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독일 통일에 대한 통일조약 10개항³⁹⁾ 지지는 유럽국가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미국 부시 대통령은 서독 콜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일조했다(정주신 2020b, 174).

일곱째, 콜 수상은 1990년 5월에 동서독과 전승4국이 2+4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화답으로서 통일조약 10개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미국 부시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처럼 통일 이전 10개월 동안 전승4국과 수차례의 정상외교를 펼친 그 결과는 승전4국이 동서독과의 관계를 통해서 독일 통일을 승인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김강녕 2020, 232). 독일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전승4국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콜 수상은 1989년 11월 29일 자신이 발표한 통일조약 10개항에 대한 미국 부시 대통령의 협조, 미·소정상회담(1989.12.2.~3.)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냉전 종식 선언 지지, 동독의 요청에 의한 두 차례의 콜-모드로우 정상회담(1989.12.19.~20; 1990.2.13.~14.), 양측의 필요에 의한 콜-드메지어 정상회담(1990.4.24.), 그리고 독일에 대한 국제적 지위와 영토·군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2+4회담(1990.5.5.~9.12.) 개최로 동서독 양국 합의 후 미·영·프·소 4국의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위 추진·결정 등을 이뤄냈다.

39) 콜 수상의 '통일조약 10개항'은 동독 지원, 동·서독 협력 강화, 동독에 자유·비밀 선거 도입, 군축과 군비 통제, 동독의 SED의 지도력 포기 및 정치범 석방, 계획경제의 폐기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며, 독일 통일을 안으로는 동독과의 정치적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밖으로는 유럽 통합을 위한 일로 규정하였다. <https://unikoreablog.tistory.com/4401> (검색일: 2021/3/12).

V. 결론

지금까지 이 글은 독일 통일을 큰 틀에서의 동서독 분단보다는 작은 틀에서의 베를린 분단,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라는 주제로 헤겔의 정(正)→반(反)→합(合) 변증법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했다. 동서독 분단이 전승4국이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련이 관할하는 동독에서 하나의 섬(island)처럼 고립된 베를린이 전통적인 수도(首都)지역이라는 위치 때문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분할되었다는 것은 연구의 가치가 있다. 베를린이 또다시 참여하게 전승4국 중 전승3국이 서베를린을 관할하고 이에 대척해서 전승1국인 소련이 동베를린을 관할함으로써 분단 독일이 독일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베를린 문제가 중요하고 분단된 베를린이 전승4국에 부정하여 반(反)으로서의 장벽을 구축하게 되고, 그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止揚)하면서 반(反)은 합(合)으로 승화시키는데, 동독 주민들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고 또다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부침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안정되고 잘사는 서독에 가서 삶을 지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작용하여 서독으로의 합법적인 이주는 물론 비합법적으로 탈출하게 이르렀고, 이에 더 이상 동쪽 주민이 서독에 가는 것을 억제시키고자 베를린 장벽의 구축을 강행한 것은 기존 전승4국의 점령 의도와 다르게 반(反)으로써 소련과 동독 당국의 체제유지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소련과 동독 당국이 동독 주민들을 가둬서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동독 주민들에게는 더 강렬한 ‘부정의 부정’이 지양(止揚)되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서독으로 가는 방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소위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소련의 완화 정책의 등장으로 서독은 동독을 압박할 명분이 생겼고, 동유럽 공산당 독재를 무너트리고 민주화된 폴란드, 헝가리 등이 동독의 민주화를 고무시켰다. 헝가리는 동독인의 대량탈출과 서독으로의 유입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를 계기로 1989년 9월에 동독 주민들의 촛불

시위가 펼쳐졌고 의도하지 않았던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 기자회견에서의 ‘즉시, 지체 없이 국경개방 허용’ 발언이란 말실수까지 발생해서 SED가 허약한 체제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동독주민들이 SED를 무너트리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요컨대 분단 독일의 독일 통일은 세월의 부침은 있었으나 독일 게르만 민족의 승리임에 틀림이 없다. 같은 민족이 전승4국이란 이름하에 동서독과 동서 베를린으로 양분시켜 외세가 의도한 분할 상태에서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갈리어 지내다 통합되었지만, 체제가 안정되고 잘사는 국가로 민족이 통합될 수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와 같이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것이나 베를린 장벽을 해체하는 대립과정은 변증법 논리의 순환처럼, 결국 국 하나된 독일로 통합이 불가피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외세가 전전(戰前) 회담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바대로 동서독으로 독일 분단을 결정짓고 그 과정에서 옛 수도인 베를린마저 동서 베를린으로 분할한 것은 그 분열의 목적이 국제사회에서의 패권논리임에 틀림없었다. 체제와 이념으로 나뉜 미국과 소련 양자구도 속에 전범국이라는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분할 하였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고 해체에 이르기까지 분단체제는 유지되었지만, 정상적인 독일인과 동서독이 통일 독일로 통합됨으로써 더 이상 분단 독일이 지속될 수 없다는 변증법 논리를 깨우쳐준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 강지연. 2020. “효과적인 해외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한 군사통합 방향 연구: 독일 군사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6).
- 김강녕. 2020. “동서독 정상회담: 통독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4(6).
- 김영운·양현모.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서울: 통일부.
- 김주삼. 2020. “독일 통일과 국내외적 환경요인.” 『한국과 국제사회』 4(6).
- 김현정. 2020.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게마인샤프트 복원.” 『한국과 국제사회』 4(6).
- 박수희. 2021.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에 대한 재고.” 『한국과 국제사회』 5(2).
- 박휘락. 2020. “독일통일 과정의 합의와 한국의 통일 준비.” 『한국과 국제사회』 4(6).
- 신종훈. 2013. “통합과 독일 사이에서: 아데나워 정부의 유럽정치와 독일정치 사이의 긴장” 『EU연구』. 제33호.
- 정주신. 2020a. “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 가능성 비교연구: 동서독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4).
- 정주신. 2020b.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인과관계.” 『한국과 국제사회』 4(6).
- 정태일 외. 2020.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검토: 알타회담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6).
- 주독대사관. 1991.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 중야 조. 1983. 『변증법 발달사』 서울: 거름.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편. 2020.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 대전: 프리마북스.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편. 2011.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 과제』. 대전: 프리마북스.
- 동아일보 1989/11/10.

Baradat Leon P., 1979.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Prentice-Hall, Inc..

Pulzer, Peter. 1995. *Germ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 Press.

Schwarz, Hans-Peter. 2010. "The division of Germany, 1945-1949." Melvyn P. Leffler/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1: Origins. Cambridge.

Wendt. 1991.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Bilanz einer 40jährig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Deutschland Archiv. Vol. 24.

blog.naver.com/gustap83/221402745534 (검색일: 2020/04/24).

blog.naver.com/gustap83/221406859314 (검색일: 2020/04/24).

cafe.daum.net/metour/5xJ8/37 (검색일: 2020/11/19).

cafe.daum.net/novelworld/RZh/16 (검색일: 2021/02/15).

focus.history.chosun.com/history/read_body.jsp?id=19990809_0068
(검색일: 2021/03/15).

heritage.unesco.or.kr/베를린-장벽의-축조와-붕괴-그리고-1990년-..
(검색일: 2021/01/23).

[namu.wiki/w/베를린 장벽](http://namu.wiki/w/베를린_장벽) (검색일: 2020/09/16; 2021/01/18).

<https://goldenblog.tistory.com/58> (검색일: 2020/10/12).

<https://blog.naver.com/teliencie92/221582941136> (검색일: 2019/09/12).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2922a> (검색일: 2020/10/18).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2021b010> (검색일: 2020/10/17).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https://namu.wiki/w/베를린_장벽) (검색일: 2021/02/21; 2020/09/23; 2020/10/03;
2020/11/13; 2021/02/21).

<https://hyuck99tvnews.tistory.com/26> (검색일: 2020/01/30; 2020/07/22).

<https://blog.naver.com/braveattack/10126700510> (검색일: 2020/11/12).

투고일 : 2021년 3월 15일 . 심사일 : 2021년 3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4월 2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로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10월 부마항쟁사: 유신체제의 붕괴』,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공저), 『4·15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공저) 등이 있다. 그 외 논문으로는 한국과 동서독 통일 문제, 한국과 영국의 정당정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Divided Germany and Unified Germany : A Dialectic Method on the Construction and Destruction of the Berlin Wall

Chung, Joo-Shin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iscuss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based on the division of Germany into four parts and the division of Berlin into four parts by the four winning nations, the construction of Berlin Wall by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and the destruction of Berlin Wall by the people of East Germany for Freedom of Travel Open. The methodology was Hegel's dialectic of These → Antithese → Synthese on the construction and destruction of Berlin Wall which has been at issue by the four winning nations and the two Germanies. In sum, ① These is the four winning nations' intention to dominate the powers by dividing Germany into east and west and Berlin in half as a result of pre-war talk, ② Antithese is the construction of Berlin Wall by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to break the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 communism, and ③ Synthese is the unintended destruction of Berlin Wall through Aufheben when the people of East Germany's candle protest as a part of the democratic movement beyond migration and deviation and G. Schabowski's mistaken remark to open the national borders 'immediately, without delay' at a press conference as the spokesperson of East Germany's SED operated as 'negation of negation.' The four winning nations led by the U.S. and the Soviet Union

intended to divide Germany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powers, but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constructed the Berlin Wall to reinforce their own communist systems. However, the Berlin Wall was destroyed by the liberation of people of East Germany for liberal traveling between East and West Germanies and opening of borders and the East German authority's ambiguous attitude toward the opening of borders. As the destruction of Berlin Wall triggered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settlement of German people and unification of Germany would be a fact that supports the dialectic logic that the division of Germany could not persist.

Keywords : Four winning nations, Berlin Wall, Dialectic Method, Division of East and West Germany, Division of East and West Berlin